

한국적 심리학의 전개 현황과 과제

한 규 석*

전남대학교

이 땅에 서양의 심리학이 근대학문으로 수입된 지 100년이 되어가고 공식적으로 한국심리학회가 발족한지 반세기가 넘은 현 시점에서 한국의 심리학은 어떠한 특색을 지니고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사회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그간 행해진 국내 심리학 연구의 갈래를 사회심리학자의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 정리를 바탕으로 한국적 심리학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과제인지를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심리학자들은 학문의 식민성을 의식하고 이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현상에 바탕한 심리학적 개념의 도출 및 이들을 연결시키는 이론적 작업이 필수적이다.

주요어 : 한국적심리학, 학문의 식민성, 이론심리학, 한국심리학회, 문화심리학

문제제기

세기말 이 땅의 인문학계에서는 “식민성”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논의의 요지는 한국에서

의 인문학(김영민, 1996)이 독자적 성격을 확보하지 못하고 서양의 이론을 답습하고 있으며, 학자들은 이론의 창출활동보다는 외국이론의 수입과 소개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는

* 본고를 보고 세심한 지적과 추가 자료를 제공해 주신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한 규 석, (500-757)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ghan@chonnam.ac.kr.

학문의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적 비판이다. 이같은 비판은 사회과학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조혜정, 1995). 학문과 사회의 관계를 밝히는 지식사회학과 과학철학의 연구들에 의해 초래된 지성사의 혁명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같은 식민성 비판에 한국의 심리학계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국내의 인문사회과학계가 학문의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있다면 국내의 심리학계는 그러한 의식을 크게 공감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본다. 간헐적인 지적은 있어왔지만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다. 왜 그러한 지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을 자연과학적 색채가 강한 학문으로 여기는 인식이 주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여긴다.

필자는 식민성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문이 자생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학문의 자생성은 각 학문에서 “우리 것”이라 할 수 있는 현상, 이론, 개념, 방법론을 얼마나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는지의 문제라고 본다. 필자는 한국에서 심리학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의 문제를 이러한 자생성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심리학과 문화

심리학은 복합학문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 심리학과가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심리학이 인문사회과학으로 분류되는 오해를 받아 왔으며,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심리학은 학문정책상 복합학문으로 분류되고 있어, 과학재단의 연구지원비 심사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몇몇 대학에서는 이공계열과 마찬가지로 과정운동을 위한 실험실습비를 걷고 있다. 심리학이 그 연구 영역에 따라서 자연과학의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

로 분류되는 복합성은 심리학자의 정체성을 이중적으로 만드는 효과와 더불어 연구경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다.

심리학은 성립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자연과학을 모델로 삼아왔다. 자연과학은 논리실증주의적 인식론을 취하여 관찰대상의 작용원리를 객관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자연과학으로 여겨지는 생물심리학 분야를 제외하면 심리학의 전 영역은 끊임없이 생각하며 생활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관찰대상이 되는 상대와 불가분의 교류상황에서 상호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교류상태가 문제되지 않는 자연과학과 동일할 수 없다. 물론 이 같은 차이점이 오래 전부터 인식되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 같은 교류문제를 최소화시키는 상황에서 연구를 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하거나, 스키너 박스를 고안하거나, 이중맹목 절차를 이용한 실험상황 등등이 그것이다(깊은 논의는 최상진과 한규석, 1998을 참고 바람). 그러나 이 같은 연구관행이 가져다 준 발견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방법에 의해 제한되는 연구문제의 축소현상이다. 가장 좋은 예로서 1920년대와 30년대를 풍미한 행동주의 접근을 들 수 있다. 관찰가능한 행동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행동과 학습의 법칙을 구명하는 것이 심리학이라는 행동주의의 입장은 심리학의 탐구대상에서 마음을 배제시켰고, 1950년대 초에 인지혁명이라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인지혁명도 정신의 중요한 기능과 작용인 의미(meanings)의 구성과 그의 작용을 연구해야 한다는 본래의 의도와는 벗어나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취함으로써 정보의 처리를 연구하는 인지심리학으로 특색을 갖추게 되었다(Bruner, 1990). 최근에 인지의 역혁명(retro-revolution; Bruner, 1990)이 주장되고 있는

것은 심리학이 논리실증주의의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실증주의 방법론에 의거하여 연구주제를 선정함으로 해서(즉 심리과정만을 다룸) 인간의 마음이 지니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연구문제로 부각조차 되지 못하는 현상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논리실증주의적 연구전통에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심리에 작용하는 보편적인 원리를 구명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잡고 있다(Berry, 2000). 이러한 목표의식을 지닌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을 자연과학에 가까운 학문으로 여기고, 사회문화적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는 인식을 하기 쉽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풍토는 연구자들의 연구대상의 선정에 보이지 않는 배경의 힘으로 작용한다. 다만 그 안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이 영향력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마치 물고기가 자신의 행태에 물이 미치는 영향력을 모르고 있다가 물 밖에 나와서야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듯이. 앞과 앞의 추구과정에 놓인 사회적 특징을 조명하는 지식사회학적 논의들은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이영희, 2000 참고 바람).

분류체계로서의 심리학

현대심리학은 서구의 사상을 바탕으로 서구인들이 익숙한 인간관, 행위에 대한 설명방식으로 이루어진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지식체계일 뿐이다(a local knowledge system).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기억, 정서, 성격, 동기, 의도, 지능, 신념, 표상, 인지 등은 사람들의 자율적 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하여 사람의 머리 속에 지니고 있는 특질(faculties)로 상정된 것들이다. 다른 세계관을 지닌 인도인들이 똑같은 대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섭리(dharma), 업보(karma)나 운, 상황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면(Shweder & Miller, 1991) 이 역시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지식체계에

의하여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전자는 이성적이고 후자는 비이성적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는 특정문화 중심의 패권적인 설명이라 할 것이다. 인도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서양 심리학의 제 개념을 사용한다면 이는 서구중심의 사대주의적 설명이 될 것이며, 인도인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설명방식이 될 것이다(Shweder & Nancy, 1991 참조). 심리학의 제 개념을 세상을 파악하는 분류체계로서 비유한다면, 대상을 어떠한 목적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분류체계가 나타나며, 목적이 다른 두 개의 상이한 분류체계는 우열을 비교할 수 없게 된다(Shweder & Miller, 1991). 우리는 이같은 분류체계가 분류대상이 지닌 고유한 특성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구성된다고 믿지만, 어떻게 분류되는가에 의해 대상의 속성이 전혀 다르게 파악되고 있음을 심리학의 많은 연구들이 보이고 있다(Tajfel, 1970의 연구가 그 대표임).

심리인류학자인 Shweder(1991)는 문화를 그 사회 성원들이 세상을 보고 파악하는 분류체계에 비유하고 있다. 이 분류체계는 시공간적 제약을 받는 문화적 구성물(cultural constituents)이다. 이 분류체계의 항목이라 볼 수 있는 용어들은 해당 문화의 성격을 담고 있다. 심리학의 역사를 연구해 온 Danziger(1997)는 각 나라마다 마음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다르고, 마음의 요소를 다루는 개념들의 의미와 개념들 간의 관계가 다를 것을 깨닫고, 심리학의 학술 용어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표상하는 자연류(natural kinds: 연구자의 이름 짓기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백양나무 등의 특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대상을 어떻게 보겠다는 실행성(practice)을 지닌 정치적 용어임을 일깨우고 있다. 이러한 용어를 인간류(human kinds)라고 구분지을 수 있다(Hacking, 1992). 인간류의 용어가 지칭하

는 대상은 사람들이 이름 짓기에 따라 그 속성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50대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칭하면 그는 노인처럼 행동하거나, 젊게 보이려고 행동할 수 있다. 한편, 자연류의 용어는 사람이 어떻게 이름을 짓던 대상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경우이다. 예로서, 흐르는 강을 시내라고 하던, 하천이라 하던, 심지어 '리버'라고 부르더라도 강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심리학 용어는 자연류처럼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류에 해당된다. 다만 해당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인식론을 적용시킴으로써 인간에 대하여 보고자 하는 특성이 비슷하여, 마치 그 특성이 자명한 특성(즉, 자연류)인 것처럼 여겨질 뿐이다. 그러나, 문화권이 다르면 인간에게서 보고자 하는 특성이 다르며, 이 특성들이 일상의 심리용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문화에 따라서 인간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다양한 기준을 들 수 있다. 전통의 한국사회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에 효심(孝心)을 중요한 준거로 여겨왔다. 어느 사회에서나 효행에 비견되는 행위양상이 나타나지만, 이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효의 덕목을 지칭하는 분명한 용어가 있어, 사람의 판단에 적용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효심이 깊다는 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불효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즉 효심은 인간이 지닌 자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특성이 아니라, 애매한 행위와 사고의 목록들에서 특정의 양상을 효심이라고 지칭하는 사회문화적 성격의 것이라는 점이다. 이 용어는 일단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양상에 변화를 수반한다. 이러한 점에서 심리학의 용어는 우리들이 잘 의식하지 못하는 사회에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한규석, 2002). 일례로, 지능(intelligence)을 이야기한다면 아동의 서열화(정량적 분석)는 불가피해 진다. 그러나 지성

(intellect)을 이야기한다면 인간성과 야만성의 정성(定性)적 차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Danziger, 1997). 심리학의 용어(지능, 내외귀인, 성취동기, 우울증 등등)는 범주화를 수반하고 이 범주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 사람에 대한 판단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서구에서 개발된 이론과 용어를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보편적인 것으로 여기고 다루게 되면 그러한 잣대에 의해 우리 한국인을 보게되며, 그러한 연구의 누적은 한국인의 이해와는 필연적인 괴리를 지닐 수밖에 없다.

최근에 동양사상에 바탕을 둔 사회과학의 구성을 표방한 학자들의 모임이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동양사회사상학회). 이들의 논의가 한국적 심리학의 역할을 비유하여 설명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기에 이를 빌리고자 한다. 주역에서는 형태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원리로서 존재하는 '도(道)'와, 그 원리에 입각해 형성된 구체적 산물로서의 '기(器)'를 이야기 한다(우실하, 1998). 이 논리를 차용한다면 사람들이 보이는 구체적인 행위, 사고, 관습 등의 문화적 텍스트를 기(器)라고 하고, 그 텍스트를 구성하는 원리, 문법, 문화를 도(道)라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심리학은 명실상부한 서도(西道)의 학문이다. 이를 갖고 한국인의 행태(텍스트)를 보는 것은 서도동기(西道東器)의 논리라고 보겠다. 동도동기(東道東器)의 논리란 한국인의 행태를 한국의 시각, 사유체계, 문화적 문법을 통해서 해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도동기론은 동양의 문화를 해석하는 정당한 인식틀로서 하나의 인식지평을 형성하고, 서도서기론은 서양의 문화를 인식하는 정당한 인식지평이다. 한국적 심리학의 모색은 동도동기론적인 심리학에 대한 갈구라고 보겠다.

한국에서 발표된 심리학 연구의 갈래 - 한국문화와 관련시켜 본 구분

한국에 서구의 현대심리학이 들어 온지 한 세기가 지나는 동안 심리학은 외형적으로는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뿌리내리는데 성공하였다(한국심리학회, 1996). 그러나 도입되어 정착된 심리학은 한국인의 이해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서세동점의 시대 속에서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을 제대로 수입하기 위해서 국내의 심리학자들은 노력하였다. 실증과학으로서 위상을 다지고 있던 심리학은 다양한 학문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과학철학이나 과학사회학의 논의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행동을 연구하는 실증적인 과학으로 받아들여졌다. 과학은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긴 학자들은 서구의 심리학 이론들을 텍스트의 형태로 받아들였다. 즉 심리학 이론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 이론들이 나오게 된 맥락(context)을 백안시하였다. 맥락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관심은 서구에서도 1970년대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고 보면, 서구심리학을 배우고 들어오는데 관심있던 당시로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된 것이 어쩌면 당연했을 듯도 싶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내에서도 문화가 탈색된(acultural) 보편이론으로서의 심리학 연구 관행에 대한 문제가 간헐적으로나마 제기되었고(민경환, 1986; 정양은, 1976, 1979), 1990년대에는 문화와 심리학의 연관성 모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제시되고 있다(조금호, 1998;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금호, 이수원, 1999; 최상진, 2000; 한덕웅, 1994).

한국적 심리학의 모색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자는 한국심리학회(1996)가 발간한 “한국심리학회 50년사”의 자료집과 그 후에 발간된 학술논문들을 바탕으로 한국문화를 염두에 두고 분류해

보았다. 필자는 출판된 모든 심리학연구를 다루기보다는 사회심리학 및 유관 분야의 연구들을 위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 까닭은 사회심리학의 분야에서 문화성에 대한 모색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필자가 친숙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심리학회에서는 12개 종의 학술지를 매년 2-4호씩 간행하고 있어, 매년 이백편 정도의 학술논문이 이들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다. 이천 명 정도의 학회원들에 의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되고 있다. 비록 다양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보편적인 심리기제를 밝히려는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인과 한국사회의 현실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심을 갖고 행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심리학적 연구들이다.

보편적 심리기제를 구명하는 심리학 연구

서구의 전통심리학은 심리현상의 보편적 기제를 과학적으로 구명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행해지고 있다. 보편성을 밝히고자 하기 때문에 심리 사회현상의 내용, 의미보다는 그러한 현상에 작용하는 심리적 변인들을 상정하고, 변인의 구조 및 변인들간의 관계와 작용 과정의 분석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연구에서 다루는 변인들 이외에 다른 변인들이 통제된다면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방식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전제를 한다. 이러한 심리학적 연구들은 문화와 사회에서 배경적으로 작용하는 변인에 관심을 두지 않으므로 탈문화적(acultural), 비사회적(asocial)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지만 여전히 주류심리학의 연구동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

전통심리학에 연구관심을 지닌 국내 학자들은

대부분 서구의 심리학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이론과 개념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지니고 있는 현상이나 이론을 택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련분야의 이론발전에 학문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1970년대와 80년대에 이루어진 대인지각, 태도, 대인교류, 사회인지, 분배행동, 소집단연구, 균형이론 등의 연구물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심리학자들의 노력

주류심리학의 연구가 사회문화적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학문과 사회를 잇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이들 노력들을 학회차원의 활동과 개인차원의 연구활동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

사회현상의 연구

학회의 차원에서 볼 때, 응용심리학에의 관심을 들 수 있다. 한국심리학회지의 발전사를 보게 되면 심리학이 한국사회에서 착근을 하는 과정에서 학자들은 응용심리학에 많은 관심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차재호·염태호·한규석, 1996). 1946년에 학회의 창립으로 학문적 정체성의 기반을 모색하기 시작한 학자들은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에 나름의 관심을 보였지만, 1950-60년대에는 군인사 심리학, 심리검사의 도입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당시에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응용분야에서 심리학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학내외적으로 인식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보였다. 학회차원에서 최초의 심포지움이 1958년에 조직되

었는데 그 제호 [심리학은 어떻게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나]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교육, 산업, 상담, 군사심리의 분야를 소개하는 글들이 발표되었다. 당시의 연구자들은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격검사의 개발과 사용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응용분야에의 관심은 60년대로 이어져 임상과 산업분야에서 최초의 분과학회가 조직되게 된다(1964년).

1974년에 심리학회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조직의 형태를 갖추는 변신을 하였고, 학자들에 의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현실과 심리학을 접목시키는 요구는 더욱 크게 느껴져 1975년부터 학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정기적 학술 심포지움이 개최되게 되었다. 심포지움의 주제는 학술위원회에서 당시의 시대상황에 적합한 이슈와 관련하여 선정하였다. 70년대에 조직된 심포지움의 제호들 [한국심리학의 반성과 전망, 1975], [한국사회와 심리학, 1976], [한국아동의 심리적 발달, 1976], [청소년문제, 1977]들을 보면 심리학을 사회와 연결시키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8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서구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젊은 학자들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심리학자가 전국의 큰 대학들에 설치되는 양적인 팽창이 급격히 이루어졌다. 매년 학회차원의 심포지움에서 사회문제들을 다루는 노력도 지속되었다. [한국 가족관계에서의 갈등, 1984], [한국인의 인간관계-문제해결을 위한 심리학적 접근, 1984], [청소년 문제, 1985], [산업사회와 적응, 1987], [지역감정, 1988], [정보화 사회, 1989], [일상화된 국민의식과 행동의 문제점, 1994], [의식개혁, 1994] 등의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1990년에는 사회문제연

1) 심리학연구의 비사회성 및 사회성의 회복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는 김혜숙(1999), 조금호(1996), 한덕웅(2001)을 참고하기 바람.

구학회가 분과학회로 발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와 학계의 연계활동이 심포지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한국사회에 기초한 심리학 이론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연구들이 그 사회적 이슈에 지속적인 연구관심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기보다는 그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 영역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실제 연구관심사와 무관하지만,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주는 일과성 연구들이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현실문제에 대하여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이상을 지니지 못하였다. 아마도 현실을 이론화시키지 못한데서 오는 이론과 현실사이의 근본적인 괴리 때문에 국내 심리학계에서는 유난히도 “반성과 전망”을 주제로 한 학술행사가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²⁾. 바람직 한 것은 그러한 현상분석을 통해서 한국적인 심리현상에 대한 심리학 이론의 구성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학회차원에서 이루어진 노력과 달리 개인적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문제와 심리학적 이해에 관심을 지닌 연구자들도 많았다(차재호, 1994; 한덕웅, 1994 등). 1970-80년대의 연구자들은 국내의 사회현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그 분석의 틀을 대부분 서양의 심리학 이론과 개념들에서 가져왔다. 이 무렵에 한국사회의 자식선호 행위, 가치관, 의식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들이 행하여 졌다.

2) 관련된 심포지움을 제호를 보면 [한국심리학의 반성과 전망, 1975], [심리학 창립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각 분야의 회고와 전망, 1979], [현 한국사회에서의 심리학의 역할: 현황과 전망, 1990], [심리학연구의 활성화 방안, 1991], [한국심리학회 50년사: 전망과 과제, 1996], [2000년대 심리학의 전망과 과제, 1999] 등이다.

특히 국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몇몇 연구들의 주제를 일별하면: 재수생(전용신, 1967), 가출청소년(김영환, 1977), 고부갈등(남정현, 1984), 남아선호(이진환, 1979; 차재호 등, 1975), 지역감정(고홍화, 1989 참조), 남녀차별(차재호, 1989), 가치관의 변화(차재호, 1985, 1994 등), 고교생의 자살(박광배·신민섭, 1990 등), 남북통일문제(1993), 물질주의(성영신, 1993, 1994), 생협운동(김양희, 1992), 교육열(한성열, 1994), 육아태도(조대경, 1969) 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 가치관, 지역감정 등의 문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일과성의 연구이었다.

70-80년대의 연구자들이 한국적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들도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특성 때문에 외국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과 독자적인 심리학의 필요성³⁾을 인지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임상과 산업심리학 전공의 분과학회가 최초로 설립된 후 심리학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사회문화적 영향이 자명한 사회와 발달심리분야에서 분과학회가 1975년에 차례로 발족된 배경에는 이같은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분과학회의 설립을 촉진하는데 기여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3) 1964년에 창립된 임상심리학회가 발족 3년만인 1967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심리학 학술지인 ‘임상심리학보’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의 발간에 부쳐 당시 한국심리학회장이었던 성백선 교수는 “...미국의 임상심리학이 미국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제에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한국에 있어서의 임상심리학도 한국으로서의 특이한 과제를 가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한국의 독특한 문제를 가진 임상심리학이야말로 회원들의 끈기있고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세계적 수준에 당도할 수 있는 날이 기필코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염태호, 1996, pp. 90-91 재인용)는 창간사를 쓰고 있다.

비교문화심리학적 연구

서양의 심리학 이론과 개념들이 한국사회에서도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비교의 목적에서 행해진 연구들이 19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는 눈에 띄게 늘어났다. 비교문화적(cross-cultural) 연구는 소위 인간행동의 '중심처리기제'(Shweder, 1991)의 작용을 밝히려는 주목적을 갖고 비서구사회에서의 적용성 및 변형에 대하여 관심을 지니고 있다⁴⁾. 이 점에서 비교문화적 연구들은 대부분 서도동기적 또는 부과된 에틱(imposed etic: Berry, et al., 1994) 유형의 연구들이다. 개별 연구자들의 지적인 관심을 보면, 이들은 대부분 서구 심리학의 개념, 현상, 이론들이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겼다. 이 같은 연구전통을 의식하고 있던 얹던 국내에서 행해진 대부분의 비교문화적 연구들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편적 심리기제를 발견하기 위함에 있었으며, 서구이론과 차이 나는 결과는 한국적인 특수 현상이거나, 절차상의 차이 등으로 여겨졌을 뿐, 심리학 원리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비교문화연구는 1990년 한국심리학회가 국제비교문화심리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ross-Cultural Psychology)와 공동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996년에 한국심리학회가 개최한 동계연수회는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연구'라는 제호로 각 심리학의 분야에서 비교문화연구가 진행되는 현황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꾸며졌다. 같은 해 여름에는 학회창립 50주년 기념행사로 사흘 간에 걸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대회에도 많은 비교문화적 연구들이 발표

되었다.

상담(김태호, 1991; 박외숙, 1996; 이장호, 1990), 성격차원(이현수, 1985), 우리(Choi & Choi, 1990; 최상진, 1993), 자기개념(오경자, 1985; 최상진·김기범, 1996), 삶의 질(차경호, 1995), 아동행동(오경자, 1996), 갈등(김기범, 1996), 법의식(나은영, 1996), 학업성취(박영신, 1996), 도덕적 판단(김기범, 1996), 공동체의식(이종한, 1992), 대인평가(조공호, 1993), 정서반응(최홍국, 1993), 가족(한성열, 1993), 귀인(공수자·한규석, 1996; Cha & Nam, 1987), 비교문화심리 이론(한국심리학회학술위원회, 1998; 한규석, 1991a, 1991b) 등의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비교문화적인 관점이 반영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국내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으나, 외국의 학자들과 공동으로 행해지기도 하였다. 비교문화연구들이 흥미있는 발견들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들 발견이 보편성의 한국적 변형 혹은 예외성의 보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한국적 이론의 구성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한국적 특성을 시사하는 자료로 제시되었을 뿐이다. 연구자들의 관심은 원 이론이 지닌 과학적 가치 및 이론의 확장(extension)에 있었으며, 문화를 반영한 이론의 구성으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외국에서 행해진 귀인에 대한 연구(McArthur, 1972)를 충실히 재검한 국내의 한 연구(Cha & Nam, 1987)에서는 미국의 원연구와 부합하는 결과와 더불어 상이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이를테면, 귀인에 있어서 합의성(consensus) 정보가 서구인들에서 무시되는 경향이 한국인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흥미로운 결과 등이 나왔다. 저자들은 이를 한국인의 귀인이 보이는 한 양상으로 적시하였으나, 논의의 초점을 귀인이론의 확장 및 정세화에 맞추고 있다. 귀인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과 이론은 1990년대 들어서 서구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4) 문화와 심리의 관계를 다루는 비교문화심리학, 문화심리학, 토착심리학에 대한 구분적 논의는 최상진과 한규석(2000)의 글을 참고 바람.

제시되고 있다(Markus & Kitayama, 1991; Nisbett 등, 2001).

이론심리학적 연구

최근에 들어서 심리학 이론과 방법론의 성립배경, 이론의 특성, 타당성, 한계점 등을 논의하는 이론심리학 분야가 기존의 과학철학과 심리학사의 영역을 아우르면서 부상하고 있다(간략한 소개서로 Bem & de Jong, 1997). 국내에서 이 분야에 속하는 관심은 비교적 일찍 제기된바 있으나 소수의 관심사에 머물렀다. 정양은(1970, 1982, 1983, 1986, 1987)은 한국의 사상적 풍토에서 심리학의 수용과 연구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서 논의하였다. 이정모는 실증심리학이 의존하고 있는 논리실증주의 입장에 관한 과학철학적 논의와 심리학사 및 방법론의 변화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1988, 1995, 1997; 아울러 조남국, 1981, 1982). 이같은 논의의 전개와 아울러서 새로운 심리학의 방법론으로 부상하고 있는 주장들을 소개하는 논문들이 몇 편 발표된 정도이다. 이들은 Harre의 에쏘제닉 접근(민경환, 1986), Moscovici의 사회적표상 이론(최상진, 1990), 현상학(이길우, 1992), 문화심리학(김정운·한성열, 1998; 최상진, 1993; 최상진, 한규석, 1998) 등이다. 최근에 국내 학자들에 의해서 파노라마적 심리학(차재호, 1991), 당사자심리학(최상진, 1997), 심정심리학(최상진, 1993), 유학심리학(조금호, 1998), 퇴계심리학(한덕웅, 1994) 등과 같은 용어를 제시하며 이론심리학 분야에서 다룬 연구물을 발표하고 있는 것은 이론의 수입에서 벗어나 자생적 이론이 발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한국사상의 심리학적 연구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사상을 현대심

리학과 접목시키려는 연구들이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 추구되었다. 단순히 지적 호기심이나 자기 것에 대한 향수와 집착 때문이 아니라 서구 심리학 만으로는 안되겠다는 허전함에서 한국의 전래적인 사상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같은 연구관심은 꾸준히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어져 왔고 최근에는 주목할 만한 성과물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 연구전통을 추구하는 학자들은 한국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여기는 사상적 체계를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여 이해를 시도하고, 심리학 연구를 위한 개념, 이론들을 도출하려고 하는 공통적 관심사를 지니고 있다. 연구의 궁극적 지향점은 비슷하지만 우선적인 하위목표나 연구성과에 있어서 구분된 논의가 가능하다.

전통사상의 현대 심리학적 이해

한국사상에 관심을 보인 심리학자들은 초기에는 전통사상, 이념, 종교적 풍토에서 심리학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현상과 개념을 현대의 심리학적 이론과 개념을 동원하여 재해석하고 비교하는 관심을 보였다. 불교의 선(禪)을 현대심리치료와 비교한 연구(김기석, 1969, 윤호균, 1970, 1982, 1991; 김정호, 1994), 기(氣)현상을 바이오피드백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조대경, 1976) 및 심리과학의 탐구대상으로 삼으려는 논구(김재은, 1997), 유학의 경(敬)사상을 정리하고 이를 주의(注意)과정 이론으로 이해하는 시도 및 그로부터 성숙인 격론을 제시한 연구(김성태, 1990; 임능빈, 1991), 무속 현상을 현대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시도(오수성, 1997)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의 사상 혹은 전래의 신념을 현대심리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심리학의 개념과 이론들을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서도동기론적 접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전통사상의 현대심리학적 논

구를 통해 현대심리학의 이론적 발전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중용사상을 태도의 이원구조론으로 이해하고 태도의 질적 변화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성과가 그 좋은 예이다. 이수원(1995, 1997, 1999)은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지혜로써 중용(中庸)이 강조되어 왔음에 주목하여 이를 현대 심리학의 개념 틀 속에서 이해하는 노력을 보였다. 사람들이 사물을 볼 때 자신이 취하는 입장을 보편화시키는 인식의 오류를 범하며, 자신의 인식 틀에 구속되어 있을 때 상대방과 자신의 대립되는 주장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양극구조로 파악되어 진다. 그러나 자신의 인식 틀을 벗어나 갈등을 대하는 경우에 상반된 것으로 여겨지던 두 주장은 이원적 구조로 파악되어 지고, 이 경우에 쌍방의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치의 발견(이수원은 이를 가치의 확산이라고 한다)이 가능하다. 바로 이 같은 인식의 전환이 중용의 요체적 심리라고 보는 것이다.

전통사상에 바탕한 심리학의 문화적 구성 도모

전통사상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넘어서, 한국인 또는 동양인이 지닌 심리문화적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개념 또는 틀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행해진 연구들이 있다. 두 사람의 연구자들이 주목할 만한 결과물을 산출하였다. 조궁호(1997, 1998)는 선진(先秦) 유학자인 맹자와 순자의 인성론, 수양론 등이 현대의 심리학의 이론들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논구하여, 동양심리학의 특색으로 도덕심리학과 역할심리학을 제시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심리학을 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한덕웅(1994, 1997, 2000; Hahn & Chon, 1994)은 조선의 성리학과 실학의 심학(心學)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개념들을 가려내어서 현대 시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심리학 이론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는 심학의 이론과 유사점이

있는 서양의 심리학 이론들을 비교하여 동서 심리학 이론에서 상호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드러내 통합적인 심리학을 창출한다는 목표에서 논구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현대 서양심리학의 부족분을 동양의 유학사상에서 찾아내고자 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궁호는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착근되고 있는 유학사상의 심리학적 이해가 필수적”(1997, p. 41)이라 보고, 유학의 순수한 뿌리가 되는 선진유학사상을 읽고 있다. 이 독해의 목적은, 그의 말을 빌면 “만약 맹자나 순자가 현대에 태어나서 심리학을 연구한다면, 그들은 어떠한 심리학을 구성할 것인가 하는 점을 그들의 안목에서 그려봄으로써, 새로운 동양심리학의 열개를 짜” 보려는 것이다(조궁호, 1998, p. 29). 이같은 그의 입장은 그의 스승인 정양은 교수의 연구전통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가 선진유학 사상을 독해하는 방법은 우선 원전의 텍스트를 저자들이 살았던 시대의 안목을 적용시켜 파악하고 나서, 오늘날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새로이 해석하는 것이다. 그는 유학사상의 여러 주장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을 논하지 않고, 그 사상이 사람들의 삶의 양태에 보이지 않지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처럼 작용하리라 보고 이 공기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작업에 비중을 두고 있다. 조교수는 특히 인간을 보는 유학의 관점이 무엇인지, 이 관점이 현대심리학의 관점과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교수는 능동적이며, 주체적이며, 가능태를 중시하며, 관계체로서 파악하는 것이 유학심리학의 핵심임을 도출하고, 동양적 심리학은 도덕심리학, 사회적 책임과 역할수행을 강조하는 심리학, 자기의 통제과정을 강조하는 심리학 등 종래의 전통적인 심리학과는 다른 심리학

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덕웅(1994, 1997, 2001)은 분석의 대상을 조선조 성리학(性理學)과 실학(實學)으로 삼고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성리학과 실학 가운데 심학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에서 전래된 주자학이 조선사회에서는 전통 사상과 연결되어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심리철학인 성리학으로 발전하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조선조 성리학은 유학 심리학을 파악하는 핵심 텍스트가 된다는 생각에서 이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의 연구는 동서양 심리학이 학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 지평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즉 동서양의 심리학이 심리를 보는 관점이나 개념체계가 다르므로 서로간의 소통이 매우 어려움⁵⁾을 인식하고 한국의 심학을 현대 심리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엄연히 존재하는 이 차이점을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유학심리학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시대상황에서 설득력 있는 한국적 심리학 이론으로 개발되고 연구를 촉진시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지닌다.

조교수가 유학심리학을 공기와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데 반해 한교수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리학의 여러 논쟁(이기론, 사단칠정론, 다산의 심리학 등)들의 차이에 주목한다. 그는 이들 유학자들이 주장하는 심리 이론들을 보합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유학심리학의 틀을 제시하며(한덕웅, 1994, 1997), 유학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동양인의 심리학이 지닐 구성적 특색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가치가 개입된 바람직한 사회공동

체의 이념, 이 이념과 일관된 심리학 이론과 가설의 개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 가설을 검증하는 사회심리학의 개발이다. 둘째로, 유학심리학에서는 객체화된 타인의 심리학보다 자기 관여된 주체화된 심리학 지식을 추구하며, 이 접근방법의 차이가 전통 한국심리학의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로, 한국인의 토착심리 현상의 발생 근저에 유학사상이 근원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유학심리학적 접근을 하면 한국인의 심성이나 행위를 단편적으로 다룰 때보다 다양한 현상을 포괄하여 내적으로 일관성있는 이론을 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유학심리학의 이론적 연구에서 심리학적 연구가설(예, 四端純善 가설, 사단칠정 평가차이 가설 등)들을 도출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한덕웅, 1996). 그 이유로 한교수는 “퇴계이론 자체가 경험적 사실의 증명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독단”(윤사순, 1978; 한덕웅, 1996 재인용)이라는 지적을 수용하고, 퇴계심학을 현대심리학의 이론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퇴계의 이론에서 현대심리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명제들을 끌어내어 경험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 유학의 4단7정 정서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생활 경험을 파악하는 연구들을 수행하였다(한덕웅, 2000, 2001b).

토착심리학적 연구

한국인이 특징적으로 지니고 있는 심성과 행위양상을 일반인들의 생활, 정서 등에서 파악하기 위한 문화심리학(Bruner, 1990; Shweder, 1990 등)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전통의 학자들은 토속적인 자료(속담, 격언, 소설, 영화, 대화 등)를 중시한다. 문화심리학적 관점을 취한 최초의 시도는 임석재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5) 예로 들어, 퇴계심학에서 심이란 단순히 마음이 아니다. 서구에서 마음이 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심은 인간신체는 물론 개인을 넘어서는 이기의 작용이다(한덕웅, 1994, p. 4).

학회 창립 이듬해(1947년)의 심리학회에서 '우리나라 고담(古談)의 심리학적 해석'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함으로써 국내에서 최초의 문화심리학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후로 그는 고담의 수집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민속학의 영역 개척에 큰 자취를 남겼으나 심리학적인 접목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심리학자로서보다는 민속학자로서의 업적을 크게 인정받게 되었다⁶⁾.

한반도에서 전개된 역사적 사건들이 한국인의 성격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보고 한국인의 사고방식, 성격특질을 문화사적인 시각에서 정리하는 연구(윤태림, 1964)가 일찍 이루어졌으나, 후속되지 못하였다. 그는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심리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신분석학, 사회학(베버), 인류학(베네딕트 등)의 이론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인을 은연중에 서양인과 비교하고 있는데 단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열등하다는 함축을 곳곳에서 던지고 있다⁷⁾. 그의 연구는 한국문화에 대한 담론에서 현상들을 새롭게 보여주는 심리학적 개념들을 끌어내었으나, 본질적으로 비교문화심리학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⁸⁾. 그의

연구는 주제선정에 있어서 선각적이었지만, 연구방법에 있어서 전통심리학의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정교한 자료수집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학계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며, 접근 시각에 있어서 서구 이론을 적용시켜 한국인을 이해하려 들었기 때문에 한국적 심리학의 이론으로 발전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전통심리학적 접근을 취하면서 한국인들의 생활 속에서 독특하게 나타난다고 여기는 행동특성들에서 심리적 개념을 끌어내고 이를 심리학적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시도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인정(人情; 이수원, 1984; 이수원 · 이현남, 1993), 어머니의 영향력(정영숙, 1996), 눈치(최연희 · 최상진, 1989; 최상진 · 진승범, 1995), 정(최상진 · 최수향, 1990), 한(김영애, 1993; 오영희, 1995; 이희경, 1996; 최상진, 1991, 1993c), 핑계(최상진, 1991), 우리(Choi & Choi, 1990), 의례적 언행(최상진 · 유승엽, 1994; 유승엽, 1998), 화병(최상진 · 이요행, 1995) 등 한국인에게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하여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한편 한국의 고전으로 취급되는 문헌 또는 속담들을 분석하여 현대 한국인이 보이는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접근도 이루어졌다(성영신, 1993; 성옥련, 1973; 최상진, 1979; 한규석, 1996).

이러한 시도들 중에서 최상진 교수는 주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는 토속적 현상이라 여겨지는 눈치, 한, 핑계, 정, 우리성, 심정 등에 대하여 심리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그는 사회표상론적 연구방법(Moscovici, 1981)을 취하여 이 현상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획득하고, 이 현상들을 꿰는 이론화 작업을 진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최교수는 심정심리학(최상진, 1993, 1996), 당사자심리학(최상진, 1997)의 논리가 한국인의 심리학을 구성하는 차별적 핵심사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인의

6) 임석재(1903-1999)는 한국심리학회의 초대회장으로 1959년 중엽까지 14년간 학회장을 연임하였으나, 그 후로는 민속학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구전설화를 채록하여 12권의 책으로 간행하였다. 한국심리학회(김태련 회장)에서는 1998년에 특별공로상을 그에게 수여하였다.

7) 유교의 유산을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며, 민주주의, 자주성, 합리성에 바탕한 사고의 발달을 저해하는 문화특색을 지니고 있다고 기술한다(윤태림, 1970). 유교문화의 공과에 대한 논의를 다룬 논문으로는 차재호(1994), 한덕웅(1994, 2001)을 참고하기 바람.

8) 비교문화심리학, 문화심리학, 그리고 토착심리학의 구분에 대하여는 최상진과 한규석(2000)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대인관계는 '우리성' 심리가 작동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우리성 관계는 정을 바탕으로 하며, 정을 축적하는 관계이며, 관계자들이 심정으로 대화하는 특징을 지닌다. 한국인의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개인은 독립적이라기 보다 타인과의 하나됨 형성을 지향한 '관계성 개인' 또는 '우리성 개인'이다. 따라서 "한국인의 우리성 관계에서 상대는 자신과 심리적으로 기관여된 '관계 당사자'가 되며 나 자신도 상대에 대해 관계 당사자가 된다. 즉 우리성 관계 속의 사람들은 서로 당사자적 입장에서 복잡한 인간관계의 문제에 깊이 개입된 사람들이다." (최상진, 1997, p. 140) 이러한 특성 탓에 상대를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대하는 제3자 심리학(the Third person psychology)을 발달시킨 서구와 달리, 한국은 상대를 관여된 당사자의 입장에서 대하는 당사자 심리학(the First person psychology)을 전개하여 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인의 심리학 연구에서는 행위자 개개인이 아니라 행위자의 관계망이 분석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는 다른 연구자들의 주장(이수원, 1990; 차재호, 1994; 한덕웅, 1994; Ho, 1993)에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한국적 심리학 정립의 과제

한국적 심리학이란?

지금까지 국내의 심리학계에서 보고된 한국사회와 한국인을 다루고 있는 연구물들을 분류하여 그 특색을 논의하였다. 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 연구가 모두 한국적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협의로 보았을 때 한국적 심리학이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대상으

로 한국의 사상, 역사, 생활양태 등으로부터 개념과 이론적 틀을 끌어내어 행해지는 심리학 연구이다. 1997년의 한국심리학회에서 개최한 추계학술심포지움 [동양심리학의 모색]에서 이정모는 이해의 대상을 동양인으로 삼되 "(1) 동양적인 심리적 개념이 가진 심리학적 의미구조의 연구, (2) 동양의 전통철학을 기초로 심리학적 이론을 구성하고 서구이론과 비교하여 세련화를 꾀하는 연구, (3) 동양특유의 심리학적 문제를 살피는 연구, (4) 동양고전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의 연구, 그리고 동양적 심리학의 방법론 연구"로 동양적 심리학을 정의하고 있다. 필자는 이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여 '동양'을 '한국'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정의하였을 때 한국적 심리학은 동도동기론적 연구이며, 협의의 정의라고 보겠다. 이 협의적 정의에 따르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많은 비교문화심리학적 연구 중에서 한국문화에서 도출된 심리학 이론을 다른 문화와 비교하는 비교문화 연구만이 한국적 심리학의 범주에 포함되고, 현재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비교문화연구는 그 범주에서 제외된다. 비록 한국인에 대한 비교문화심리학의 연구들이 한국인의 특성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려준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한국적 심리학의 정체성은 협의의 연구 활동에서 찾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현행 비교문화심리학의 연구들이 더하고 있는 이론과 개념들이 서구의 심리학 이론들이라는 점,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 그 원리의 보편성을 확인하는데 연구의 주목적이 있다는 점, 제3 세계에서 관찰되는 특이성은 시공간적 특수성이 작용하는 탓에 나타나는 변형(variations)으로 여겨질 뿐 이론에 대한 본질적 문제제기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서구의 가치지향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 학문의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협의로 정의된 한국적 심리학은 한국

의 사상, 역사, 생활양식 등의 뿌리로부터 이론적 틀을 마련하여 행해지므로 한국인의 삶의 모습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학문의 종속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비교문화심리학적 연구들이 한국인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 분야의 연구들은 광의의 한국적 심리학에는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광의로 한국적 심리학을 정의한다면 한국인의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심리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적 심리학의 정립을 위해서는 비교문화심리학의 접근보다는 문화심리학(김정운·한성열, 1998; 최상진·한규석, 1998, 2000; Shweder, 1990)의 관점에서 행해지는 비교문화적 접근(comparative cultural studies: 김정운·한성열, 1998)이 한국적 심리학 구성의 핵심적 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심리학의 이론과 개념이 그 문화적 맥락과 의미를 떠나서 무분별하게 한국인의 분석에 적용되는 오늘의 연구 현실에서 한국적 심리학은 기존의 심리학 이론과 개념의 문화사회적 배경을 파악하는 노력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내의 심리학계는 이론적 자립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동안 심리학을 배우는데 급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을 모르는 외국 학자들이 제시한 이론과 개념들에 의지하여 사고해 왔고, 학생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들의 눈으로 우리 현실을 보는데 너무도 익숙해 있다. 그러나 남의 눈을 이용해 분석하는 우리의 사회현실에 대한 설명이 만족스러울 수 없다⁹⁾. 우리의 문화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회 현

상을 이해하는 틀을 갖추기 위해 우선 시급한 것은 외국의 연구자들이 제공하는 개념과 이론들의 텍스트(text; 탈맥락화된 이론과 개념 자체를 뜻함)를 그 배경(context)이 다른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점을 지닐 것인지를 숙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서 최근에 보고된 자존심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를 들어 보자(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자존심에 대한 연구는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졌고, 많은 연구들이 자존심을 재는 척도(Rosenberg, 1979)를 번역하여 사용해 왔다. 이를 사용하여 문화간 비교를 행한 연구들은 북미인들의 자존심이 높고, 동양인들이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 거의 모든 연구자들은 암묵적으로 자존심이 높은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행해진 연구들은 일본인들에게서 자존심이 개인의 긍정적 정서와는 별 관계가 없으며,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괴리가 크지만, 이것이 개인의 우울증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Heine & Lehman, 1999). 이같은 결과는 자존심이 지니는 기능이 문화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문화적 맥락을 도외시한 이론과 개념의 연구가 지니는 취약점을 잘 드러내 보인다. 국내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외국에서 개발된 다양한 척도들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경우에 연구자들은 흔히 척도를 우리 실정에 맞추기 위하여, 번역에 신중을 기하거나(역번역; Brislin, 1986), 의역을 하거나, 몇 가지 문항들을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작업을 벌인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만으로 문화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9) 김정운과 한성열(1998)은 비교문화심리학의 대표적 이론인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Triandis, 1995)이 함축하고 있는 문화변동의 진화적 가치(집단주의 문화가 개인주의 문화로 진화한다는 시각)를 통찰력 있게 지적하고 있다.

10) 2001년에 국내의 학계에서는 "우리말로 학문하기"

라는 학술모임이 결성되었다. 이 모임은 그동안 국내의 인문학, 사회과학 및 예술의 분야에서 학자들이 외국인의 눈을 빌어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활동을 해 왔음을 자성하고, 이에서 벗어나 우리의 자생적 이론을 구성하여 가자는 취지를 표방하고 있다(이기상, 2002).

수는 없는 것이다. 척도가 재고자 하는 개념의 문화적 의미를 재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검토 결과, 텍스트를 버리거나, 문화사회적 맥락에 따른 변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할 때에 비로소 한국인의 이해를 위해 도움이 되는 심리학 연구가 될 것이다.

한국적 심리학 연구의 과제

국내에서 한국적 심리학에 대한 관심은 그 동안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면면히 이어져 왔고 오늘날은 상당히 확산되어 있다. 이제 심리학을 배우는(learning psychology) 수준에서 탈피하여, 한국적 심리학을 구성하고, 한국인의 심리학 하기(doing psychology)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론의 식민성 인식

저 간의 분위기를 보면 국내의 심리학계에서는 한국적 심리학을 방계의 홍미거리 정도로 여겨왔다. 즉 모색하여 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주류 심리학이 될 수는 없으며, 기껏해야 재미있는 발견들을 몇 가지 보여 주는 정도를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정서가 지배하였다. 즉 연구할 가치가 있는 과학적 심리학의 주제는 서구 심리학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제공하는 발견들은 서구에서 제시된 원리의 보편성에 대한 문화적인 특수성을 보여 줄 뿐이라는 인식이다. 사실 이 같은 인식론은 국내외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에게 공유되고 있으며, 비교문화심리학자(Cross-cultural psychologists)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비교문화심리학자들은 보편성을 지닌 심리학 이론을 얻기 위해서 여러 문화권에서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비교문화의 검증과정을 거쳐 문화 특수성을 초월하는 일반이론을 모색하고 있는 것

이다(Berry, 2000).

서도동기론적 접근이 지닌 문제점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우선, 현상을 접근함에 있어서 외국의 이론이 제공하는 측면만을 보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치 외국의 이론과 그 개념들로 여과기를 삼아 여과된 현상만을 보는 격이다. 이 여과기로 걸러진 현상은 우리의 문화 현실이 탈색된 연구실의 현상(asocial phenomena)이 되는 것이다. 일례로, 국내에서 1980년대에 많이 다루어진 대인지각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밝히는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인상형성의 주요인이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individual attributes: 신체매력, 사교성, 지능, 성취 등)인 서양에서 다루는 그러한 변인들을 그대로 차용하여 연구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대인지각도 서양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는다면 이는 잘못이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안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인상형성에 작용하는 중요한 현실적 변인들(출신교, 출신지역, 연고, 연령, 어투 등)이 배제된 이론을 검증하는 것은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인상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작업이다. 따라서 외국의 이론에 의지해 행하는 연구는 현실의 이해에 도움이 안 되며, 연구업적을 위한 연구 학문의 종속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서도동기론적 접근을 취할 때 심각하게 우려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가 독특하게 세계 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과 개념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심리학의 여러 개념들이 비록 서구사회에서 나왔지만 한국의 심리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사회현상의 다양한 측면에서 그들 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

는 문화나 공유하고 있는 현상의 요소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마치, 어느 사회에서나 사람들이 어울려 지내며, 가족을 이루고, 결혼을 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지만 사람들이 어울리는 심리, 가족의 규범, 결혼의 사유 등에서 각기의 문화가 특색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서구사회에서 교류관계를 보는 틀은 개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교환의 관점이다(Homans, 1961; Kelley & Thibaut, 1978).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교류관계는 교환보다는 정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이수원, 1984, 1987; 최상진, 2000). 이같은 특성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서구사회에서는 정의 요소가 없다거나, 한국사회에서 교환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서구사회의 관점인 교환이론이 그 사회의 교류양상에 터하여 구성되었지만, 동양사회의 분석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의 교류양상에 터한 정의 이론이 구성되어 서구사회의 분석에 적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서도 동기론적 입장을 취할 때 이 후자의 부분이 현실화되는 것은 요원할 것이다. 한국의 심리학자가 인간관계의 이해와 이론 발전에 기여할 부분은 교환이론의 발전된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라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터한 정(情)이론을 구성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다. 교환이론이 한국인의 인간관계 이해에 통찰을 제공하듯이, 정의론은 서구인들에게 인간관계의 이해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¹¹⁾. 서구의 교환이론

에 비견되는 한국의 정의론이 제시될 때야 비로소 인간관계 이론의 보편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의 종속을 벗어나 뚜렷한 축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두드러진 사회현상에 대한 이론화 작업 자체를 큰 관심거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양한 현상들이 우리 학자들의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님을 이미 논의하였으나, 그러한 노력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것은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주목함으로써 제시된 것이다. 차재호(1991, 1999)는 일과성의 사회적 사건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 특성을 파악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 분석을 위해서 '파노라마식 접근'이라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사회심리학이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주장이며, 한국사회의 현실에 바탕한 사고가 심리학에 새로운 영역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인다.

서구의 이론을 여과기로 삼은 이론을 검증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론과 변인들이 한국사회 현실에 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의 작업은 사회현실과는 괴리가 컸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심리학을 접목시키려는 가시적인 노력이 학회 차원에서 학술 심포지움의 형태로 면면히 경주되어 왔던 것이라 본다. 그러나, 학문 외적인 활동에 의해서 사회와 심리학을 연결시키는 노력은 공허하다. 학자들이 다루는 이론이 삶의 현장에서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11) 2000년 폴란드에서 열린 15차 비교문화심리학 세계대회에서는 동아시아 학자(한국, 일본, 홍콩, 대만)들이 정에 대한 심포지움("Interpersonal emotions of Asians: The Chinese, Korean and Japanese")을 개최하여 참가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 심포지움은 최상진 교수가 조직한 것으로 정이라는 한자를 공유하고 있는 3개국에서 정을 이론화하려는 학자들의 공식적인 모임이었으며, 상당히 정교화된 정의론의

구상이 홍콩과 대만의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재검(replication)연구의 수행

과학의 발달에서 재검연구가 지닌 의미는 매우 크다. 이미 발표된 연구의 절차를 밟아서 재검연구를 하는 것은 연구의 타당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이론의 전개를 위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서구에서 발표된 잘 알려진 연구에 대하여는 많은 재검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연구자들의 창의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결과가 안정되게(robust)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론의 발전에 선행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sch(1955)의 동조연구, Milgram(1963)의 복종연구 등은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동서양의 여러 나라들에서 재검연구가 이루어졌다(Smith & Bond, 1997 참조).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심리학에서 유명해진 사회심리학의 고전적인 연구에 대한 재검연구가 국내 학술지에서는 거의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¹²⁾ 많은 국내의 연구자들은 외국에서 행해진 중요한 연구의 핵심적인 결과들이 국내에서도 나타나리라는 암묵적인 전제를 하기 때문에 연구절차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학술적 가치가 적다고 여기는 탓이다. 따라서, 원 연구에 새로운 변인을 도입하거나, 변인의 조작방식에 변화를 주면서, 외국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점검하거나, 혹은 이론의 정세화나 확장을 도모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연구들이 재검연구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재검연구는 원 연구의 핵심적 개념에 대한 문화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원 연구의 결과가 재현될 것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의심을

풀기 위하여 원 연구의 절차를 그대로 도입하여 검토하는 조건의 설정이 필요하다(오세철, 1981, 1982).

한국적 심리학의 구성에서 재검연구가 차지하는 가치는 매우 크다. 그러나 외국에서 행해진 연구의 절차를 그대로 혹은 의미적으로 유사하게(equivalent) 도입하여 재검하는 것이라면 그 가치는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서구의 이론이 제시하는 변인들의 작용을 탈문화적으로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검연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 절차를 복제하여 재검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변인 혹은 실험조건을 추가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추가적인 절차가 없이 연구결과가 재검되지 못할 경우에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를 명확히 해석하기 어려워 사후설명(post facto)을 제시할 뿐이며, 아울러 연구결과를 출판하는 기회를 얻기도 어렵기 때문이다¹³⁾. 바람직한 재검연구의 예를 보여주는 연구로, 최인철 등(Choi & Nisbett, 1998)은 한국인도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근본귀인오류 양상(Ross 1977)을 보이지만, 행위자(target)가 처한 상황을 직접 실험참가자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 조건에서는 미국인들과 달리 상황론적 귀인을 많이 하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발견은 귀인양상의 보

12) 오세철(1981, 1982) 교수는 여러 사회심리학 연구(집단극화현상, 성취의 귀인, 태도-행동의 이론적 행위모형 등등)를 국내에서 재검하는 연구를 하였고, 이들을 그의 저서에서 보고하고 있다.

13) 국내에서 Festinger와 Carlsmith(1959)의 인지부조화 실험을 재검한 연구가 차재호 교수 지도로 행해졌다(Choi, Choi, & Cha, 1986; Choi, Nisbett, & Norenzayan, 1999에서 인용). 그러나, 인지부조화 현상은 재검되지 못하였고, 결과는 출판되지 않았다. Festinger의 연구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여러 차례 재검의 시도가 있었으나 그 결과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Choi et al., 1999에서 인용; 홍대식, 1970). 최근에 Nisbett 등(Nisbett, Peng, Choi, & Norenzayan, 2001)은 동서양의 사고양식에서 차이를 이론화하며, 동아시아에서 인지부조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동시에 보임으로써 이론의 발전과 한국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론의 포용

학회지의 발표 논문들 중에서 대안적 인식론에 바탕한 연구는 전무하며, 질적연구 조차도 찾기 보기 힘들다. 천편일률적으로 실험과 조사에 의한 자료를 양적으로 처리한 것들이다. 이는 국내 심리학계가 양적 방법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심리학이 자연과학을 모델로 삼아 발달해 오면서, 방법론적인 틀이 너무 협소하게 설정되었다. 이러한 설정이 연구문제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면서 심리학을 현재의 모습으로 가꾸어 왔다. 심리학의 연구가 의존하고 있는 논리실증주의는 과학철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그 취약점이 충분히 드러났다(요약을 보기 위하여 이정모, 1995, 1997; Bem & de Jong, 1997). 과학사자들은 과학적 연구의 형태와 정의, 탐구 소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문화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과학자들은 현실의 요구에 의해 탐구문제를 잡아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타당한 방법론을 모색한다. 가용한 방법론이 문제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 대안적인 방법론이 활발히 모색되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이다. “실증주의 심리학을 벗어나서 참으로 새로운 심리학을 출발시키기 위해서는 심리학은 물음을 던지고 싶어하는 주제에 대하여 더 적절하며, 물음을 던지는 상황에 대해 더 적절한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우리가 추구하는 문제에 맞게 적용시키고 개발시켜야 하지, 현재 주어진 방법론에 맞게 우리의 탐구의 물음을 적용시켜 제한해서는 안 된다.”(Allport, 1963; 이정모, 1997에서 재인용)

오늘날 새로운 인식론들이 대두되면서 심리학

을 포함한 사회과학의 지평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의 심리학계는 이같은 전개에 미온적인 반응만을 보이고 있다. 학계에서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거나 소개하는 몇 편의 논문들이(민경환, 1986; 이정모, 1995, 1997 등; 최상진, 1990, 1993) 발표되었지만 거의 반향을 못 얻고 있다. 여전히 국내의 심리학자들에게 대안적 연구는 외면당하고 있다. 필자는 그 가장 큰 이유로 연구자의 소극적 의식이 문제라고 본다. 즉 이론과 창의적인 연구의 창출에 의하여 심리학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욕은 없고, 잘 개발된 연구방법에 의하여 경험적 연구의 산물을 축적해 가면 된다는 의식, 즉 이론의 소비자로서 만족을 느끼는 의식이 문제라고 본다. 현대 심리학의 방법론이 서구사회의 지적 산물이고, 그를 이해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 왔으나 이제 새로운 인식론과 방법론에 대한 요구가 부상하고 있다.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배경으로 작용하는 구성주의적 인식론(Gergen, 1985)은 동양사상의 유구한 전통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한국의 심리학자들이 서양의 학자들에 비해서 새로운 지평을 확보하는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겠다.

활발한 상호소통

국내에서 심리학자들의 연구역사는 길다고 볼 수는 없으나, 누적된 문헌의 수가 적다고 할 수도 없다. 오늘날은 전문학술지 12 종에 매년 이백 여 편의 학술논문이 출판되고 있다. 이들 문헌들이 모두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문헌의 질에 문제가 있는지 다른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국내연구들은 거의 참고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한국심리학회가 간행하는 학술지 중에서 두 종을 골라 그 창간호부터 1999년까지 발간된 매호에서 무선적으로 3개씩의 연구논문을 추출하여 총 146개 논문¹⁴⁾의 참고문헌

을 조사한 결과, 발간 초창기나 20-30 여 년이 지난 지금이나 국내문헌이 차지하고 있는 참고문헌의 비율은 기복만 심할 뿐 25%를 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에 실린 국내문헌도 대부분 연구자 자신의 다른 연구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은 국내학자들의 연구가 외국문헌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내에서 관심주제를 다룬 연구가 없어서 참고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국내 학자들의 수와 연구물의 산출이 1970년대에 비해서 최근에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문헌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국내문헌에 대한 경시 경향을 반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관련주제에 대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있는지의 여부가 점점조차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라는 느낌을 받는다¹⁵⁾.

결론: 한국적 심리학을 지향하며

한국의 심리학계가 한국적심리학 이나 동양심리학의 정립을 모색하는 것은 두 가지 동기가 작용하는 때문이라 본다. 그 하나는 반만년의 역사를 지니고, 오백 여 년 동안 유교사상의 터 속에

서 생활한 경험을 지닌, 정체성이 뚜렷한 한국인과 한국사회에 대하여 심리학적 접근을 하고, 이를 현대심리학의 이론으로 만들어 보자는 동기이다. 이 동기는 국내에서 몇몇 선각자들에게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으나 뚜렷한 열매를 맺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와 90년대에 문화차이에 대한 서구 심리학자들의 관심 부상과 더불어 국내의 많은 심리학자들에게도 이 관심이 확산되었다. 많은 학자들에게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의 정당성은 서구심리학의 학문조류에 의해서도 타당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접근이 서양심리학의 한계(서도서기론 및 서도동기론)에 머무르거나 국수주의적 경향(동도서기론)을 지닐 필요는 없다. 바람직한 접근은 동도동기론적 접근을 취하여 한국적 심리학을 구성하여 가며, 서구의 심리학(Western indigenous psychologies)들과 비교를 통해 한국인의 심리를 이해하는 이론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같은 심리학이 구성될 때 비로소 참다운 의미의 보편성 있는 심리학이 가능하며, 심리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의 심리학은 서구의 토착심리학일 뿐이기 때문이다(Berry, 2000).

두 번째로 한국적심리학과 동양심리학을 모색하는 동기는 현실과 심리학을 보다 밀착시키려는 바람이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심리학 연구가 탈문화적이고 추상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심리과정의 이론화에 치중하면서 해당 사회의 역사 문화와는 유리되게 되었다. 그 결과, 각 문화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심리 현상에 대하여 심리학자들이 별로 할 말이 없게 되었다. 비록, 국내의 심리학계에서 사회현상의 분석에 심리학적 접근을 취하는 주제를 갖고 해마다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심리현상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범학제적 학술모임에 심리학자의 참여는 매우 드물었다. 일례로,

14) '한국심리학회지: 일반'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의 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만을 보았으며, '일반'의 경우에 주위에서 입수가 되지 않은 연도(1984, 1985, 1997)의 간행물은 제외하였다.

15) 1999년에 한국심리학회에서 개최한 학술심포지움 [2000년대 심리학의 과제와 전망]에서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분야에 대한 위 제호의 논의를 발표했다. 이같은 제호가 한국의 심리학자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현황을 적극 참조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각 논문의 참고문헌에 [한국심리학회50년사]나 [한국심리학회헌디비]를 제시한 사람은 7명중 2명 뿐이었다.

1999년 6월 30일에 개최된 정신문화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학술대회 “신뢰사회와 21세기 한국”에서 심리학은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현실참여가 저조한 중요한 이유는 참여의 바탕이 심리학계의 지적(知的) 토양에 의존하지 못하고 개인의 재능(talent)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심리학의 이론을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는 한 한국사회 현실에 적절한 이론을 제시하기 힘든 것이다. 한국사회에 뿌리를 둔 심리학을 하고 있을 때 사회참여와 연구는 불가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동기가 어떠한 간에 추구하는 목적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현실에 바탕한 심리학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식과 삶이 겹도는 현상”이 한국 심리학의 문제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 언어를 가지지 못한 사회, 자신의 사회를 보는 이론을 자생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사회를 식민지적”(조혜정, 1995, 22쪽)이라고 부른다면 한국의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심리학 수준이 식민지적이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혹자는 한국적 심리학의 모색이 학문의 국수화라고 회의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서도동기적 접근을 꺼려하듯이, 동도서기적 접근 또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것은 균형된 시각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서도동기적인 설명이 지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동도동기적인 이론과 개념들을 정립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심리학에서 추구하는 보편성은 이 결여된 인식지평이 구성되기 전에는 패권(霸權)적인 보편성일 뿐이다. 하나의 인식지평에서 다른 인식지평을 바라보고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참된 의미에서 인식의 지평을 넓혀 가는 지평혼융(fusion of horizons)이라고 할 수 없다. 지평혼융이란 “자기 자신의

특이성과 대상을 보다 높은 일반성으로 고양시키는 것”(Bleicher, 1993; 우실하, 1998 재인용)이다. 즉 동서양의 서로 다른 심리의 작용현상을 그 배후에 놓인 문화적 문법, 원리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나서야 보편성과 일반성의 발견이 비로소 가능하다.

동도동기적 심리학의 지평을 형성하기 위해서 한국적인 것의 탐구로부터 도출되는 자생적인 개념, 이론 틀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것은 해 볼 수 있는 사치가 아니라 꼭 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인 것이다. 이들을 국제 심리학계에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심리학자는 심리학의 변방에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생태계와도 격리된 박제된 연구자의 위치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흥화 (1989). 자료로 엮은 한국인의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 공수자, 한규석 (1996). 한국인의 인물과악경향-비교문화적 조명. *국제한국학회지*, 1, 89-104.
- 김경자, 한규석 (2000). 심정대화의 특성: 심정표상과 심정대화의 경험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22.
- 김기석 (1969). 선의 심리학적 일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1(2), 37-41.
- 김성태 (1989). *경과 주의(증보판)*.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김성태 (1986). *성리학과 심리학*. 한국심리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움: 인간이해의 동서 비교. 7월 4-5일. 서강대학교.
- 김성태 (1990). *경사상과 한국문화*.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v-xvi.
- 김양희 (1992). 한국도시주부의 생협운동. *한국심*

- 리학회 연차학술발표회. 10월15-17일, 서울 대학교.
- 김영민 (1996).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서울: 민음사
- 김영애 (1993). 한국여성의 한에 대한 상담심리학적 고찰.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학술발표회.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3월16일.
- 김영한 (1977). 청년기 가출과 부모의 역할.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회. 11월5일, 이화여자대학교.
- 김재은 (1996). 기의 심리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정운, 한성열 (1998). 문화심리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97-114.
- 김정호 (1994). 구조주의 심리학과 불교의 사념처 수행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13(1), 186-206.
- 김태호 (1991). Cross-Cultural counseling.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학술발표회. 3월16일.
- 김혜숙 (1999). 사회심리학 연구의 최근동향,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전망과 과제.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2000년대 심리학의 전망과 과제." 145-180.
- 나은영 (1996). 상대적 박탈감과 법의식: 사법연수원생과 일반대학생 비교. 사회심리학회 월례모임. 5월 18일.
- 남정현 (1984). 고부간의 갈등.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한국가족관계에서의 갈등. 7월7일, 연세대학교.
- 민경환 (1986). 사회심리학의 방법론 논쟁: 그 소개 및 한국의 사회심리학에 던지는 의미. 김경동 안청시(편), 한국 사회과학 방법론의 탐색.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민경환 (1986). 사회행위의 연구: The Ethogenic Approach. 사회심리학 연구 3(1), 199-216.
- 민경환 (1991). 사회심리학연구의 활성화방안-역사형성에의 참여.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사회맥락과 심성개발. 10월25-26일, 중앙대학교.
- 박광배, 김미숙 (1992). 한국청소년의 집단주의적 가치체계: 가족관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62-75.
- 박광배, 신민섭 (1990). 고등학생의 대학입시목표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 박영신 (1996). 대학생의 학업성패경험과 성패귀인의 관계.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4(1), 89-112.
- 박외숙 (1996). 다문화적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에 대한 검토. 14회 동계심리학연구 세미나: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연구. 2월14일. 중앙대학교.
- 설기문 (1993). 다문화주의와 상담의 토착화.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학술발표회. 9월 18일.
- 성영신 (1993). 논어와 맹자에 나타난 물질관과 소비행동.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한국인의 특성-심리학적 탐색. 10월22일, 서울대학교.
- 성영신 (1994). 한국인의 그릇된 물질주의와 과소비 유형.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일상화된 국민의식과 행동의 문제점. 5월20일, 성균관대학교.
- 성영신, 김철민, 고동우 (1995). 한국인의 경제 가치관에 관한 연구: 조선 중·후기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8(1), 103-140.
- 성옥련 (1973). 한국고전동화의 교육심리적 세계. 한국심리학회 학술연구발표회. 6월9일, 서울대학교.
- 성현란 (1995). 한국과 일본아동에 있어서 개념적 체계화의 유통성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8(2).
- 심혜숙 (1990). Cross-Cultural Study of a Personality Inventory: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in the Korean Language.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학술발표회. 9월15일, 이화여자대학교.
- 염태호 (1996). 임상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1996). 한국심리학회 50년사. 서울:교육과학사
- 오경자 (1985). 동양계와 서구계 미국대학생의 자아개념 및 적응도 비교조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10월18-9일. 전북대학교.
- 오세철 (1981). 문화와 사회심리이론: 조직행동이론의 재구성. 서울: 박영사.
- 오세철 (1982). 한국인의 사회심리. 서울: 박영사.
- 오수성 (1997). 한국무속의 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동양심리학의 모색. 10월 24일, 이화여자대학교. 145-153.
- 오영희 (1995). 용서를 통한恨의 치유: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1).
- 우남희 (1994). 학령전 아동의 사람범주화의 발달. 발달심리학회 월례회. 3월26일.
- 우실하 (1998). 오리엔탈리즘의 해체를 위한 인식 전환으로서의 동도동기론. 동양사회사상, 1, 9-45.
- 유승엽 (1998). 대인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의례성 심리과정 모형과 그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61-180.
- 유승엽, 최상진 (1995). 한국인의 '의례성'에 관여되는 심리과정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10월6-7일, 서울대학교.
- 윤태림 (1964). 한국인 Personality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연구발표회. 10월 31일, 서울대학교.
- 윤혜경 (1993). 한글의 음운부호화가 한글 지각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달적 연구. 발달심리학회 월례회. 11월.
- 윤호균 (1970). Buddhism and Counseling. 한국심리학회지. 1(3), 103-115.
- 윤호균 (1982). 정신분석, 인간중심의 상담 및 불교의 비교(I):인간 및 심리적 문제에 관한 견해.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
- 윤호균 (1991). 정신치료와 수도 - 정신분석과 선을 중심으로. 소암 김동식 선생 고회기념논문집
- 윤호균 (1997). 상담: 불교로부터 무엇을 시사받을 수 있는가?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동양심리학의 모색. 10월 24일, 이화여자대학교. 11-16.
- 이기상 (2002). 세계화시대에 한국 지성인의 역할. 사이, 1, 12-33.
- 이길우 (1992).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현상학적 방법론. 임상심리학회. 3월14일.
- 이동식 (1997). 동서정신치료의 통합--도와 정신치료.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동양심리학의 모색. 10월 24일, 이화여자대학교. 3-9.
- 이상로 (1977). 성격이론과 정신건강에 관한 동서양의 비교고찰 (성리학과 정신분석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11월5일, 이화여자대학교.
- 이상로 (1993). 성리학에 내재된 심리사상.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10월21-23일, 서울대학교.
- 이수원 (1984). 한국인의 인간관계 구조와 정. 교육논총(한양대 교육문제연구소), 1, 95-123. 한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이수원 (1987). 한국인의 인간관계와 정공간. 한국심리학회 추계 심포지움: 산업사회에서의 인간요인, pp. 131-142. 서울대학교.
- 이수원 (1995). 양극구조에서 이원구조로: 개인내

- 태도구조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14, 1-32.
- 이수원 (1997). 중용의 심리학적 탐구.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동양심리학의 모색. 10월 24일, 이화여자대학교. 107-129.
- 이수원, 이현남 (1993). 한국인의 인정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한국인의 특성-심리학적 탐색. 10월 22일, 서울대학교.
- 이영희 (2000). 과학기술의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의철 (1979). 순자의 심리설. 한국심리학회지, 2(3), 119-131.
- 이장호 (1990). Comparisons of Oriental and Western Approaches to Counseling and Guidance.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3(1).
- 이장호, 김정희 (1989). 동양적 상담지도 이론 모형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2(1).
- 이정모 (1988). 과학적 연구의 전제와 가정들.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10월28-9일, 서울대학교.
- 이정모 (1995). 과학적 심리학의 이론적 기초: 기본 가정의 분석. 한국심리학회 동계연구세미나.
- 이정모 (1997). 심리학 방법론의 개념적 재구성: 서양 방법론의 시사.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동양심리학의 모색. 10월 24일, 이화여자대학교. 155-180.
- 이종한 (1992). 공동체의식에 관한 개인주의-집단주의 관점에서의 비교문화적 비교. 한국심리학회지:사회, 6(2), 76-93.
- 이진환 (1979). 성선호 사회화. 사회심리학회 월례모임. 6월1일.
- 이현수 (1985). 아이젠크의 성격차원에 관한 연구: 한국과 영국. 한국심리학회지, 5(1).
- 이훈구 (1979).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제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심리학회 월례모임. 7월31일.
- 이희경 (1996). 한국인의 사회심리와 한의 개념(1). 사회심리학회 월례모임. 5월18일.
- 임능빈 (1981). 퇴계의 도덕심리학적 일연구. 율곡논총, 12.
- 임능빈 (1991). 성격이론의 일연구 - 유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논총, 10(1).
- 임능빈 (1992). 노년기 적용에 대한 일연구 - 노장 사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논총, 11(2).
- 임능빈 (1995). 동양사상과 심리학. 서울: 성원사.
- 장현갑 (1996). 명상의 심리학적 개관:명상의 유형과 정신생리학적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
- 전용신 (1967). 재수학생의 심리(S대, Y대, K대 경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연구발표회. 10월28일, 서울대학교.
- 정양은 (1970). 감정론의 비교연구- 사회적 감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3), 77-90.
- 정양은 (1976). 심리구조이론과 동서이론비교. 한국심리학회지, 2(1), 68-79.
- 정양은 (1979). 한국과 미국에 있어서의 심리학의 위치와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2(3), 180-182.
- 정양은 (1982). 심리적 사실과 심리현상의 차원. 사회심리학연구, 1(1).
- 정양은 (1983). 사회화의 사회심리학적 고찰. 사회심리학연구, 1(2), 153-178.
- 정양은 (1986). 심리적 사실에 대한 동서비교. 사회심리학연구, 3(1), 1-16.
- 정양은 (1987). 물리적 실체, 사회적 실체, 심리적 실체. 사회심리학연구, 3(2), 1-24.
- 정영숙 (1996).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아동의 과

- 제수행 열심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심리학회지: 사회, 10(1), 159-170.
- 조금호 (1990). 대인평가차원의 이원모형. 한국심리학회지, 8(1), 87-110.
- 조금호 (1990). 맹자에 나타난 심리학적 함의(I):인성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73-108.
- 조금호 (1993).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 대인평가이원모형의 확대 -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24-149.
- 조금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1), 104-139.
- 조금호 (1997). 선진유학사상의 심리학적 함의.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동양심리학의 모색. 10월 24일, 이화여자대학교. 41-106.
- 조금호 (1998). 유학심리학. 서울: 나남출판.
- 조금호 (1999b). 선진유학사상에서 도출되는 심리학의 문제. 최상진 등(편), 동양심리학(pp. 31-161). 서울: 지식산업사.
- 조남국 (1981). 과학이론과 심리학 I, II. 사회심리학회 월례모임. 11월21일.
- 조남국 (1982). 심리학과 과학철학(2). 사회심리학회 월례모임. 3월.
- 조대경 (1976). 기에 관하여: Biofeedback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2), 80-88.
- 조선미, 이형초, 현진, 서지영 (1995). '빨리 빨리' 조급성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임상심리학회 하계 학술대회. 7월1일, 경북대학교.
- 조혜정 (1995).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굴림기와 삶읽기<1>: 바로 여기 교실에서. 서울: 또 하나의문화
- 차재호 (1995). 한국, 일본 및 미국 대학생들의 삶의 질 비교.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삶의 질의 심리학. 6월16일, 서울대학교.
- 차재호 (1985).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사회심리학회 월례모임. 5월.
- 차재호 (1989).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남녀차별이 나타난, 집단차별의 세가지 차원.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10월27일, 이화여자대학교.
- 차재호 (1991).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의 전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10월26일, 중앙대학교.
- 차재호 (1994). 지난 백년간의 한국인의 가치, 신념·태도 및 행동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5-19.
- 차재호, 염태호, 한규석 (1996).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편), 한국심리학회 50년사. 서울: 교육과학사.
- 최상진 (1979a). 한국속담 속의 사회심리.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회. 10월26-27일, 전남대학교
- 최상진 (1979b). 한국청소년의 비행요인과 가정내 상관변수. 사회심리학회 월례모임. 6월29일.
- 최상진 (1990). 사회적 표상이론에 대한 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9(1), 74-86.
- 최상진 (1991). '한'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pp. 339-350)
- 최상진 (1993a).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자기. 한국심리학회지:사회, 7(1), 24-33.
- 최상진 (1993b). 한국인과 일본인의 '우리'의식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10월 21-23일, 서울대학교.
- 최상진 (1993c). 한국인의 심정심리학-정과 한에 대한 현상학적 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추계 심포지움: 한국인의 특성-심리학적 탐색. 10월22일, 서울대학교.
- 최상진 (1997). 당사자 심리학과 제삼자 심리학.

-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동양심리학의 모색. 10월 24일, 이화여자대학교. 131-143.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9-295.
-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85-202.
-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0). 정(미운정 고운정)의 심리적 구조, 행위 및 기능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4(1), 203-222.
- 최상진, 유승엽 (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137-157.
- 최상진, 유승엽 (1994). 한국인의 의례적 언행과 그 기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논문초록, 369-385.
- 최상진, 유승엽 (1996). 심정심리학의 개념적 틀 탐색.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논문초록, 377-388.
- 최상진, 윤호균, 한덕용, 조금호, 이수원 (1999). 동양심리학, 지식산업사.
- 최상진, 이요행 (1995). 한국인의 홑병의 심리학적 개념화시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10월6-7일, 서울대학교.
- 최상진, 임영식, 유승엽 (1991). '핑계'의 귀인/인식론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10월26일, 중앙대학교.
- 최상진, 진승범 (1995). 한국인 눈치의 심리적 표상체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10월6-7일, 서울대학교.
- 최상진, 최수향 (1990). 정(미운정 고운정)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11월9-10일, 부산대학교.
- 최상진, 한규석 (1998). 심리학에서의 객관성, 보편성, 및 사회성의 오류: 문화심리학의 도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2), 73-96.
- 최상진, 한규석 (2000). 문화심리학적 연구방법론.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4(2), 123-144.
- 최수향 (1989). Toward a socio-cultural framework of the mother-child interaction.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 114-124.
- 최수향 (1990). 엄마-아동의 상호작용에 관한 사회문화적 접근. 발달심리학회 월례회. 10월 27일.
- 최수향 (1997). 비교문화발달심리학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회(편),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연구. pp.173-209 서울: 성원사.
- 최연희, 최상진 (1990). 눈치기제가 유발되는 상황과 이유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11월9-10일, 부산대학교
- 최홍국 (1993). 정서반응의 구조와 영향. 한국, 미국간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75-184.
- 한국심리학회 (1996). 한국심리학회 50년사. 서울: 교육과학사
- 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회 (1997 편),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연구. pp.173-209 서울: 성원사.
- 한규석 (1991a). 사회심리학이론의 문화특수성: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132-155.
- 한규석 (1991b).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0(1), 1-19.
- 한규석 (1996). 한국심리학회 50년의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97, 5-12.
- 한규석 (2002). 학술용어 사용의 심리학-왜 우리말

- 로 학문해야 하나. 사이, 1, 80-93.
- 한덕웅 (1994). 퇴계심리학: 성격 및 사회심리학적 접근.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한덕웅 (1995). 퇴계심학의 실증적 연구방향 모색. 사회심리학회 월례모임. 12월 9일.
- 한덕웅 (1994/1996). 퇴계 심리학: 성격 및 사회심리학적 접근.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한덕웅 (1997a). 한국유학의 4단7정 정서설에 관한 심리학적 실증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발표논문집.
- 한덕웅 (1997b). 한국유학의 심리학적 기초: 퇴계 율곡과 다산의 실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동양심리학의 모색. 10월 24일, 이화여자대학교. 17-40.
- 한덕웅 (2000). 대인관계에서 4단7정 정서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45-166.
- 한덕웅 (2001). 한국의 유교문화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비판적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449-479.
- 한덕웅 (2001b). 한국 유학의 4단7정 정서설에 관한 심리학적 실증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1), 1-40.
- 한성열 (1993). 한국가족의 형태와 발달의 과제.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한국인의 특성-심리학적 탐색. 10월22일, 서울대학교.
- 한성열 (1994). 한국문화와 그릇된 교육의식 및 관행.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일상화된 국민의식과 행동의 문제점. 5월20일, 성균관대학교.
- 한성열 (1994). 한국가족의 형태와 발달의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59-67.
- 한성열, 안창일 (1990). 집단주의와 나이, 교육, 결혼 및 주거 형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116-128.
- 홍대식 (1970). 인지적 부조화가 정보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4), 128-138.
- 홍성열 (1994). 반정부 학생시위에 대한 학년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204-215.
- 홍숙기 (1991). 한국 부모들의 자녀양육방식 및 태도. 발달심리학회 월례회. 4월27일.
- Asch, S. E. (1955). Opinions and social pressure. *Scientific American*, 19, 31-35.
- Bem, S., & de Jong, H. L. (1997). *Theoretical issues in psychology: An introduction*. London: Sage.
- Berry, J. (2000). Cross-cultural psychology: A symbiosis of cultural and comparative approache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197-206.
- Berry, J., Poortinga, Y., Segall, M., & Dasen, P. (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eicher, J. (1993). 해석학적 상상력. (전병석 역). 문예출판사.
- Brislin, R. (1986). The wording and translation of research instruments. In W. J. Lonner & W. Berry (Eds.), *Field methods in cross-cultural research* (pp. 137-164). Beverly Hills, CA: Sage.
- Bruner, J. (1990). *Acts of meaning*.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 J.-H. & Nam, K. D. (1985). A test of Kelley's cube theory of attribution: A cross-cultural replication of McArthur's study.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12, 151-180.
- Choi, I. & Nisbett, R. E. (1998). Situational salience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orrespondence bias and the actor-observer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949-960.
- Choi, I. & Nisbett, R. E., & Norenzayan, A. (1999). Caus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Variation and univers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 47-63.
- Danziger, K. (1997). *Naming the mind: How psychology*

- found its language*. London: Sage.
- Farr, R. M. (1996). *The roots of moder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Mass: Blackwell.
- Festinger, L., & Carlsmith, J. (1959). Cognitive consequences of forced complia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8, 203-210.
- Gergen, K. (1985). Social constructionist inquiry: Context and implications. In K. Gergen & K. Davis.(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erson*. pp.3-18. New York: Springer-Verlag.
- Hacking, I. (1992). 'World-making by kind-making: Child abuse for example', in M. Douglas and D. Hull (eds), *How classification works: Nelson Goodman among the social science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pp. 180-238.
- Hahn, D-W. & Chon, K-K. (1990). A Socio-Emotional Theory on Neo-Confucianism in Korea: Analytical Collectivism or Integrated Collectivism. 국제학술대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동서양 심리학의 만남」. 7월12일, 정신문화연구원.
- Heine, S., Lehman, D. (1999). Culture, self-discrepancies, and self-satisf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915-925.
- Heine, S., Lehman, D., Markus, H.,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4), 766-794.
- Ho, D. Y. F. (1996). Relational orientation and its psychological consequence. In M. H. Bond(ed.), *Handbook of Chinese psychology* (pp. 240-256).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Homans, G. (1961).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
- Berry, J. (2000). Cross-cultural psychology: A symbiosis of cultural and comparative approache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197-206.
- Berry, J., Poortinga, Y., Segall, M., & Dasen, P. (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lley, H. H. & Thibaut, J. W. (1978). *Interpersonal relations: A theory of interdependence*. New York: Wiley.
- Lee, C-H. (1996). Indigenized approach to psychotherapy in Korea culture. 한국심리학회 5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Mind, Machine, & Environment: Facing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6월 27-29일, 스위스그랜드 호텔.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R., & Kitayama, S. (1994).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 and Emotion: Implications for social behavior. In S. Kitayama & H. R. Markus (Eds.). *Emotion and culture*, Washington D. 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cArthur, L. A. (1972). The how and what of why: Som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casual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2, 171-193.
- Milgram, S. (1963). Behavioral study of obedie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371-378.
- Moscovici, S. (1981). On social representations. In J. P. Forgas(ed.), *Social cognition: Perspectives on everyday understanding*. pp. 181-209. London: Academic Press.
- Nisbett, R., Peng, K., Choi, I., Norenzayan, A.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2), 291-310
- Ross, L.D. (1977). The intuitive psychologist and his

- shortcomings: Distortions in the attribution proces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0), New York: Academic Press.
- Sampson, E. E.. (1977). Psychology and the American ide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767-82.
- Shweder, R. & Miller, J. (1991).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erson: How is it possible. In R. Shweder(Ed.), *Thinking through cultures: Expeditions in cultural psych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 Shweder, R. & Nancy, M. (1991). Determination of meaning: Discourse and moral socialization. In R. Shweder(Ed.), *Thinking through cultures: Expeditions in cultural psych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 Shweder, R. (1990). Cultural psychology- what is it? In J. Stigler, R. Shweder, & G. Herdt(Eds.), *Cultural psychology: Essays on comparative human development*. pp.1-46. Cambridge, Ma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weder, R. (1991), *Thinking through cultures: Expeditions in cultural psych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 Smith, P., & Bond., M. (1998). *Social psychology across culture*. (2nd Eds.) Boston: Allyn and Bacon.
- Tajfel, H. (1970, Nov.). Experiments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Scientific American*, 96-102.
- 1 차원고접수일 : 2002. 3.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2. 12. 2
최종게재결정일 : 2002. 12. 5

Constructing the Korean Psychology: Current Status and Suggestions for Future

Gyuseog Ha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 reviewed the historical efforts of constructing the Korean psychology in Korea. Taking the cultural psychological perspective(Shweder, 1990), I defined the Korean psychology as the psychological study of and for the Koreans, which should be constructed with the concepts and theories rooted in Korean social life. I elaborated why it is needed, what have been done with regard to, and how it should be pursued. Up until 1980's, Korean psychologists were eager to importing Western psychology. Western psychology was regarded the psychology of universal theory. Because people are not keenly aware of the cultural properties of psychological theory, schism developed between psychological theory and Korean social life. Construction of Korean psychology begins with recognition of colonial status of psychological studies in Korea. Researchers should base their theory on the social life of Korean people. Suggestions were made to help build up Korean psychology. Studies of replication may benefit if conducted with cultural variables added to the original study. More attention to other Korean researcher's work is desired.

Key Words : Korean psychology, Western psychology, construction, Cultural psychology, decolonize, replication